

무형유산의 아시아적 가치 인류 번영을 위한 영성 인본주의¹⁾

투 웨이밍
베이징대학교 교수

들어가며

지난 몇 년 동안의 무형유산 보호 조치를 반추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마련된 유네스코 국제회의의 개최를 맞이하여 이삼열 사무총장과 내외 귀빈을 비롯한 많은 참석자와 더불어 무엇보다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역사에 남을 이 순간을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지난 150년이 넘도록 문화 변방으로 밀리거나 수난을 당하고 특히 무형유산의 소멸 위기에 봉착한 모국에서 나는 배우고 다시 배우며, 또한 새로운 배움을 위해 과거 학습을 잊기를 원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유교 전통은 절과 교육기관 및 유형건축물을 비롯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베트남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동아시아 이주민들을 아우르는 동아시아의 무형유산이다.

1984년 하와이 호놀룰루 동서문화센터(Hawaii East-West Center)에서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아시아 문화 지역 5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교 가치의 서열에서 일반 서민들 간에 유교 가치가 역동하는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일반 대중은 유교의 기본 가치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었다. 비용을 많이 들인 이 조사에서 나타난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이 전사본은 유네스코 무형유산 1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투 웨이밍이 구술로 발표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1. 한국
2. 일본
3. 홍콩
4. 대만
5. 중국

이 순위는 사실 지난 3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는 게 개인 생각이다. 오늘날 다시 조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국이 제1의 유교주의 국가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은 기독교가 매우 융성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무속신앙과 불교의 전통 유산이 아주 풍부한 나라이기도 하다. 게다가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비롯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화교들을 포함하는 중국 문화는 이른바 재건·부흥·재정비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지도자층, 최상류층, 대표 학계, 대중매체, 기업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눈에 띄게 보인다. 한 사례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 사서四書를 일부 암송할 수 있는 8~13세 어린이가 1000만 명이 넘는다.

영성 인본주의

개인 경험

우선 21세기에 형성된 이른바 ‘영성’ 인본주의(spiritual humanism)란 개념을 개인 경험으로 나누고 이 용어와 ‘영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의 초청(2001년)으로 ‘문명의 대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된 포럼에 참여한 이래 지난 10여 년간 점점 늘어난 동료들과 함께 발전시켜 온 생각이다. 물론 이 노력은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당시 독일 대사인 한스 하인리히 브레테의 초청으로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와 집행이사회 특별 세션에서 문명 간 대화에 관한 생각을 발표하는 영광을 누린 2004년까지도 계속되었다. 각국 대사 58명이 참석한 이 토론회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시 무렵까지 진행되었고, 오찬을 들면서도 계속하는 등 그 자리에서 상당히 고무시키고 시사하는 바가 큰 대화를 나누었다. 201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연례 유엔 문명 간 연대(UNAOC) 포럼에서도 연설할 기회가 있었다. 스페인과 터키 두 나라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UNAOC에서 21세기 인류공동체를 위한 문화 다양성 및 공통된 가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인으로서 크게 고무되었다.

위기의 시대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류의 생존 가능성도 의문이 든다는 주장이 있다. 인류가 직면한 다수의 난제로는 국제 무질서, 금융위기, 부의 분배 방식, (국가와 집단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립된 개인이 자행하는) 폭력 증가가 있다. 심지어 다양한 첨단 기술을 동원해 단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상황에도 직면해 있다. 이처럼 매우 위험한 상황은 시리아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 노르웨이와 많은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타 문명과 특히 토착 지역 등 전 세계 무형유산을 보전, 유지, 혁신, 쇄신하고 확실한 창의성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 주는 보호 활동에 수십 년간 전념해 온 동료들과 함께 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매우 귀한 기회를 얻게 된 것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이삼열 사무총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이 회의에서는 영성 인본주의에 관한 내용을 압축해서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협조가 필요하다.

계몽주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상은 18세기에 태동해 오늘날까지도 유효하고 여전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서구의 계몽주의 정신임이 분명하다. 위대한 계몽주의 사상가로는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와 디드로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도 독일의 라이프니츠, 볼프, 칸트와 같은 인물이 있다. 이후 데이비드 흄과 아담 스미스와 같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도 있으며, 계몽주의와 관련된 미국의 주요 인물들도 있다. 계몽주의 사상을 인류 역사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이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유주의, 무정부주의, 공산주의는 물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모두 이 사고 방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주요 사상은 인류공동체를 비롯해 각종 제도, 시장 경제, 민주주의 정치, 시민 사회, 다국적 기업, 연구 중심 대학, 시민·군대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이 모든 것은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결코 발견되지 않는 계몽주의 시대의 일부이자 근대 세계의 한 영역을 차지한다.

부정적 산물

지난 반세기 동안 서구세계(북미와 유럽)의 최고 지성인들이 계몽주의 사상의 약영향에 대응하고자 노력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부정적 영향이란 무엇인가?

- 공격성 강한 자민족 중심주의: 자기 민족을 세상 모든 것의 중심에 둬.
- 도구의 합리성: 합리성을 의사소통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국주의로 증명하듯이 세계를 지배 수단으로 사용함.

알고 즐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배와 정복을 하고 싶은 욕망인 파우스트 욕구란 것이 있다. 최근 작고한 나의 스승이면서도 절친한 한 지인은 '개인소유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개인소유주의는 한 사람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개인주의라기보다 영향력이 막대한 금융 귀재나 다국적 기업의 최고 경영진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다. 수십억 달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극도로 공격성 강하고 탐욕스러워서 인류 공존의 희망을 짓밟는다.

긍정적 산물

최근 50년 동안 지성과 영성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페미니즘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미와 서유럽에서는 페미니즘 학자들 사이에서 인간의 조건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반성이 논의됐다. 페미니스트 혁명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세계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권력, 통치, 교육 등 차원에서도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페미니즘은 지난 50년 동안 자유주의 전통이 일궈 낸 위대한 성과물이다.

'생태의식'과 웰니스(양생) 개념도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 부각에서 중추 역할을 한 것은 유네스코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예상되는 다문화주의 개념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자와 보수 성격이 짙은 종교관 입장에서 볼 때 저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세계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세계는 점차 분화되고 있어서 한두 가지, 아니 세 가지 이념으로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양극화 세계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세계를 북아메리카, 유럽연합, 동아시아의 세 개로 분화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인도가 이 세 지역이 지배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것인가? 터키나 인도네시아는 어떠한가? 브라질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들 사회는 모두 변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과 종교 복수주의는 사상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해야만 한다.

대화하는 세계 對 대답하는 세계

영성 인본주의를 계몽주의 정신의 공감 가는 이해 및 엄밀한 검토와 우리가 직면한 주요 쟁점의 해결을 위해 철학의 재료로 다뤄 보고자 한다.

동료 가운데 한 명은 한동안 '계급 없는 문명'이란 개념을 강조, 대중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비록 갈등과 긴장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세계관과 사고방식은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점차 많은 사람이 소통, 타협, 협력, 상호 관련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대립보다 대화 방식이 미래의 추세다.

우리의 문명이 대화의 문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대립 상황에 머무르는 이유로는 인류공동체의 생존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류가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를 단순한 동질화가 아니라 세계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제 세계화가 동질화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다. 전 세계의 공항만 보더라도 특징이 공통으로 나타난다. 컨벤션 홀과 대학, 관광 및 오락 관련 시설물도 고도로 동질화됐다. 게다가 문화 세계화가 세계 곳곳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고 있다. 문화 세계화는 처음에 경제 세계화와 같은 동질화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추측됐다.

언어

지금으로부터 50~60년 후에는 주요 언어가 오로지 하나만 남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었다. 그는 중국을 방문한 후에 주요 언어를 두 개로 정정했을 것이다. 동질화 개념으로 한두 가지 언어만 남게 될 것이라는 강박관념이 있었음에도 그러나 언어의 다양성은 매해 수십 개의 언어가 소멸하는 현실과 영어의 지배력에 관한 잘못된 생각 속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계급 없는 문명을 연구한 한 동료는 미국 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몰두하며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미국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깊이 우려했는데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민의 50% 이상이 자신들의 모국어인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뉴멕시코, 플로리다, 텍사스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 다양성 전반의 질문은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문화 다양성과 문화 세계화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전통 철학관으로 비추어 볼 때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구체화해서 구현하는 모든 힘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강력하고 중요한 영향력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문화 다양성에는 인종, 민족, 성(페미니스트 운동이 그토록 강력해 온 이유가 됨), 언어가 포함된다. 중국인의 80%는 베이징어를 사용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모국어에 열렬한 애착을 느낀다. 대만에서 국민당은 베이징어를 유일한 상용어로 인정하여 이를 강요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모국어 사용을 금지했으나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반항의 의미로 모국어를 사용한다. 주요 관리들조차도 베이징어 사용에 대해 푸젠어(Hokkien)를 사용한다. 이처럼 언어란 우리가 억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싱가포르 또한 푸젠어 사용을 인정한다.

연령 문화

1950~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이른바 ‘젊은이 문화’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인구 구성이 변화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더 이상 아버지나 할아버지, 심지어 선생님으로부터 배우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 가며 대중매체를 통해 배운다. 자신들 특유의 문화와 놀이, 나름대로의 취향이 있다. 본질 가치의 성향을 의미하는 종교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연령별 문화와 출생지, 영성의 존재에 대한 질문과 계급, 사회 분화의 중요성도 인정해야 한다. 이 모든 요소가 중요하다. 이런 연유로 무형유산이 매우 중요하며, 선주민으로부터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신석기 시대 이래 1000년 이상 이 정신을 지키며 공존해 왔기 때문이다. 선주민들은 자신들의 정신을 지켜 냈지만 현대인들은 실패하고 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인간성(humanity)을 회복해야 한다.

핵심가치

우리 모두가 수용해야 할 일반 핵심가치는 자유, 합리성, 인권, 평등, (모두에게

정당한 절차의) 합법성, 인간의 존엄성을 포함한다. 이들 가치는 모두 근대화, 초기 서구화, 세계화로 인해 계몽주의 사상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가치는 모두 합한다 하더라도 인류의 번창은 커녕 생존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자유뿐만 아니라 정의도 필요하다. 바로 이것이 이슬람 세계가 서구 세계에 분노하는 이유다. 합리성, 특히 국제 차원의 합리성 외에도 동정심과 공감과 연민이 필요하다. 인권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과 도리, 도리의식도 필요하다. 평등 외에도 차별성과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합법성 외에 시민성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개인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사회 조화 문제도 인식해야 한다.

2000년 동안 유교 전통은 공자로부터 시작하여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와 자사문파의 맹자, 한나라의 동중서를 거치면서 꾸준히 발전했다. 수백 년에 걸쳐 이들을 통해 다섯 가지 핵심가치인 오상五常이 형성되었다(우선 국제회의 개최를 기념해 개최지 ‘광주光州’를 살펴보면 ‘광’자는 ‘빛’ 또는 ‘불’을 의미한다). 다섯 가지의 인륜인 오상은 다음과 같다.

- 인仁: 인류애
- 의義: 정의
- 예禮: 예의
- 지智: 지혜
- 신信: 신뢰

계몽주의 가치는 자유, 합리성, 인권, 평등, 합법성,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이는 우리가 일반 가치로 수용해야 하는 위대한 가치다. 유교 가치 역시 인류애, 정의, 예의, 지혜(자료, 정보, 지식뿐만 아니라 실용 지혜까지), 신뢰 등 보편의 가치다. 유교 가치는 보편 가치와 상반되는 아시아 특유의 가치가 아니라 일반 가치가 계몽주의에 뿌리 깊게 박혀 있듯 아시아에 배어 있는 보편 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대화는 절대 필요하다.

나는 오랜 시간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주요 대학 학생들은 모두 예의와 지혜와 신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자비, 공정, 정의보다 인간애를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믿고 있다.

한번은 학생들에게 자유와 정의, 이성과 이해, 인간의 권리와 의무, 법 준수와 시민의식,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 화합 중 양자택일을 하라고 했다. 20년 전에 다양한 전공의 전 학년 학부생 5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하버드 대학의 압도하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유, 이성, 인권, 평등, 개인의 존엄성을 선택했다. 3년

전 하버드 대학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했다. 그때에는 정의가 자유만큼이나 중요하고 때로는 더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성별 차이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들의 경우 이성보다는 이해를 선택했다. 인권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지만 시민의식을 비롯해 인간의 의무가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소송이 빈번한 사회가 되어서인지 사람들은 시민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가는 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인류 개념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듯 인간이 해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이성의 동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카를 마르크스처럼 인간을 도구 사용자, 언어 조작자로 규정할 필요도 없다. 인간은 총체 개념의 동물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자 사회성 동물이고, 정치와 역사 성격의 동물이며, 미학의 동물이다. 육경(六經)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시편(詩篇)을 보면 인간은 감성의 동물, 예기(禮記)에서는 사회성 동물, 서경(書經)에서는 정치성 동물이다. 인간을 역사성 동물, 미학 동물로 보는 책도 있다. 역경(易經)에 나온 인간은 형이상학적 동물이다.

우리는 이성과 정신을 비롯해 몸을 사용하여 사고해야 한다. 나는 호놀룰루 동서문화센터 부설 문화소통연구소의 원장으로 일한, 귀한 기회를 누린 바 있다. 당시 내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하와이의 영성 지도자인 카후나(kahuna)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었다. 카후나를 통해 다양한 미국 원주민 문화의 원주민 전통을 수호하는 매우 중요한 영성 지도자 여러 명을 만나기 위해 애썼다. 나는 그들에게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원로들과 신중한 거친 후 연속성과 참여성을 함축하는 '선조'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문명 간 대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핵심 대화가 두 가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종교와 과학 간의 대화로, 이는 서구세계의 위대한 두 가지 전통인 그리스 문명과 유대 문명이 어느 지점에서 서로 화합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 인도, 원주민 문화가 있는 기타 문화권 등 서구 세계 외에 속한 모든 전통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는 사고하고 심사숙고하며, 논리에 부합되게 추론하고 느끼며 구현해야 한다. 이 모든 전통 정신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인류공동체의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생각은 완전히 구닥다리가 되었다. 데카르트는 위대한 철학자지만 그의 철학은 오늘날 전혀 맞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 생각한다. 나는 이 세계를 현재 지금의 모습으로, 세속의 세계가 아닌 성역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집이라는 개별

공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사회·정치의 중요성, 심지어 형이상학형의 중요성을 띤다. 따라서 내가 제안한 개념에 관해 철학적 사고를 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바로 체화된 사고이자 체화된 지식을 의미한다. 중국어를 배운 사람이라면 알 수 있듯 ‘사람 인(人)’은 인류를 의미하며, ‘인간’과 ‘돌’을 뜻한다. 1993년에 발굴된 귀톈(郭店本)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예시가 담겨 있다. 글자 ‘人’이 ‘인간’과 ‘돌’로 쓰인 것이 아니라 맨 위에 몸, 맨 아래에 마음과 지성을 담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인류라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다음 4가지 차원인 감정·이성·영혼·정신을 어떻게 통합시키는가,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 등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과 어떻게 충실하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인류와 자연 간의 지속 가능하고 연속된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인간의 감정 및 이성과 하늘의 순리 간의 중립성 및 상호 응답은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이 4가지 쟁점은 미래의 인본주의 형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래의 인본주의는 다듬어지지 않았고, 종교 음악 성격이며, 비판되지 않아서 계몽주의 사상이 가르쳐 준 모든 것을 거부하지만 도덕의식과 인류의 전후 사정 부여를 목표로 삼는다.